

수업 활동지 집필 봉원중학교 국어교사 고지연
 고덕중학교 사회교사 최윤서
 이대부속고등학교 국어교사 송현민



교과 연계

국어

1학년 읽기: [9국02-02] 읽기 목적과 글의 구조를 고려하며 글을 효과적으로 요약한다.

2학년 읽기: [9국02-08] 자신의 독서 상황과 수준에 맞는 글을 선정하고 읽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며 읽는다.

3학년 읽기: [9국02-07]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책이나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는다.

사회

중학교 사회 1 - 개인과 사회생활

분야

청소년 > 진로 선택 / 자기 계발

키워드

#진로 #직업의세계 #꿈 #나의미래

책의 구성 소개

이 책은 12명의 직업인이 언젠가 일터의 동료가 될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다정하고 생생한 일 이야기를 전합니다.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일부터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까지,

다양한 사람을 연결하는 일부터 손과 발을 움직여

나만의 노하우를 쌓는 일까지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직업인들이 어떤 궤적을 지나 지금의 직업에 도착했는지,

일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기쁨은 어떤 무늬인지,

일하면서 지키고 싶은 원칙은 무엇인지 등 일과 삶에 새긴 진지한 고민과

건강한 자긍심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책을 통해 각 직업에 요구되는 역량과

일터에서 필요한 정보 등 실질적인 일의 현장 역시 접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유물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을 메일링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 신지은**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며 사회적 통찰을 발견하는 **데이터 과학자 이은조**

결함과 약점이 가득한 마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임상심리학자 박혜연**

한 송이 꽃에 담긴 아름다움과 기쁨을 나누는 **플로리스트 김시원**

벽과 모서리를 마주하며 자신의 자리를 넓혀 가는 **도배사 배운솔**

실험하고, 실패하고, 도전하는 삶에 긍지를 느끼는 **미생물학자 문성실**

식물을 찾고, 기다리고, 기록하는 **식물세밀화가 이소영**

건강의 의미를 낱알이 새롭게 발견하는 **의사 홍종원**

요리와 함께 무르익는 삶을 살아가는 **채식요리사 재인**

언어 안에서 먹고, 살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번역가 노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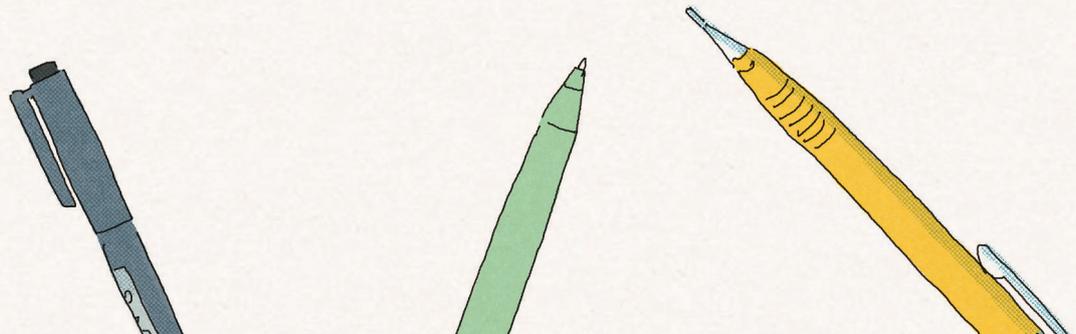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는 **동물트레이너 이순영**

더 많은 사람과 운동장을 누비며 자라고 싶은 **체육교사 전해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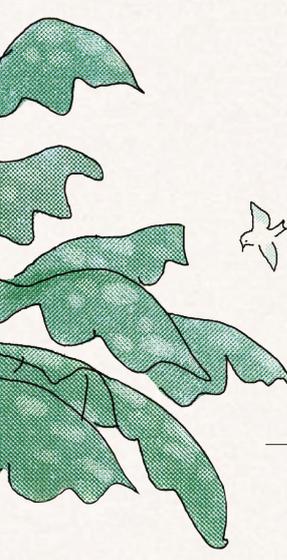


활동지는 책을 읽는 청소년이 각 저자가 전하고 싶은 직업과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일과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성했습니다. 책에 소개된 직업인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내일의 내 일'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생각해 보는 것과 더불어 각 직업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탐구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활동지는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각 장의 내용을 이해한 후 그 내용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읽기 전 활동인 '들어가며'는 각 장의 제목과 장의 소개 글을 통해 장의 내용을 예측하고, 관련 경험 및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활동 동기를 부여합니다.
- 읽는 중 활동인 '내용 확인하기'는 주어진 질문에 답하며 각 장에서 소개하는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글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며 익히도록 합니다.
- 읽은 후 활동은 '생각 넓히기'와 '활동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생각 넓히기'는 관련된 보조 자료를 통해 장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계발하도록 합니다.
- '활동하기'는 배우고 익힌 내용을 여러 매체 자료나 일상생활에 적용해 갈등을 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함으로써 독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례

- 
- | | |
|------|--|
| 1차시 | 박물관과 유물 사이, 사람의 마음을 메일링해요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 |
| 2차시 | 게임 데이터를 분석하며 사회적 통찰을 발견합니다 데이터과학자 |
| 3차시 | 결함과 약점이 가득한 마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임상심리학자 |
| 4차시 | 한 송이 꽃에 담긴 아름다움과 기쁨을 나눕니다 플로리스트 |
| 5차시 | 벽과 모서리를 마주하며 나의 자리를 넓혀 가요 도배사 |
| 6차시 | 실험하고, 실패하고, 도전하는 과학자의 삶에 공지를 느낍니다 미생물학자 |
| 7차시 | 식물을 찾고, 기다리고, 기록합니다 식물세밀화가 |
| 8차시 | 건강의 의미를 나날이 새롭게 발견해요 의사 |
| 9차시 | 요리와 함께 삶도 무르익어요 채식요리사 |
| 10차시 | 언어 안에서 먹고, 살고, 미워하고, 사랑합니다 번역가 |
| 11차시 |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전부는 아니랍니다 동물트레이너 |
| 12차시 | 더 많은 사람과 운동장을 누비며 자라고 싶어요 체육교사 |



들어가며

1. 박물관에 가 본 적 있나요? 가 봤다면 얼마나 자주 가나요?

2. 박물관과 관련된 직업 중 아는 것이 있다면 떠오르는 대로 써 보세요.

3. 메일링 서비스란 이메일을 통해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창작물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박물관에서 메일이 온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지 적어 보세요.

내용 확인하기

1. 글쓴이가 운영하는 <아침 행복이 똑똑>이라는 메일링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9쪽)

월요일과 목요일 ()시에 ()한 장과 ()이 담긴 이메일을 구독자에게 전하는 일이다. 고화질로 찍은 ()이나 ()을 감상할 수 있는 링크도 첨부된다.

2. 일반적인 메일링 서비스는 홍보의 영역에 속하지만 <아침 행복이 똑똑>은 홍보팀이 아닌 박물관의 학예연구실에서 담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학예연구실은 어떤 곳인가요?(10쪽)

- <아침 행복이 똑똑>은 ()을 소재로 다양한 화제를 녹여 내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과 (), 서비스를 모두 학예연구실에서 담당한다.
- 박물관의 학예연구실은 다양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박물관 소장품을 ()하고 ()하며, 전시를 ()하는 곳이다.

3. 글쓴이는 메일링 서비스라는 ‘잘 맞는 일’을 하기까지 22개월 동안 여러 다른 일을 해 왔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 일들은 글쓴이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14~17쪽)

- 잘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거쳐 온 시간은 그냥 흘러져 버린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
- 데이터베이스 업무 경험 덕분에 유물을 (). 관리자의 시점으로 살피며 세세한 분류와 전문 용어, 정보가 어떤 구조로 담기는지 자연스럽게 익혔다.
- 빅데이터 분석에 참여한 것은 숫자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을 추리하고, ()과 () 사이의 ()을 읽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궁금해졌다.
-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이 글쓴이의 등을 밀어 ().

생각 넓히기

1. 가족, 학교 또는 그 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에는 무엇이 있나요?

2. 그 공동체에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구성원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 다른 구성원과 연결되어 무언가를 이뤄 낸 경험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망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 | |
|-----|--|
| 경험 | |
| 관계망 | |

3. 글쓴이는 큐레이터나 도슨트 외에도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십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통해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들로는 누가 있는지, 각각의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  <p>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들</p> | 직업 | 하는 일 |
|--|----|------|
| | | |

활동하기

1. 글쓴이의 장래 희망은 ‘자기 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설탕, 꿀, 소금, 간장과 된장, 참기름 등 어떤 것인지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나의 간은 ()이다. 왜냐하면

2. 글쓴이는 안 맞는 것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등을 밀어 맞는 일 앞으로 데려다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글쓴이처럼 나와 ‘안 맞다’고 여겨지는 일을 한 적이 있나요? 하기 싫었던 일, 안 맞는 일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 적어 봅시다.

들어가며

1.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단어들을 써 봅시다.

| | |
|-----|--|
| 데이터 | |
| 과학자 | |

2. 떠올린 것들을 바탕으로 '데이터과학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지 추측해 그 모습을 그려 보고, 그림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 데이터과학자가 일하는 모습 그리기 | 그림 설명하기 |
|--------------------|---------|
| | |

내용 확인하기

1. 글쓴이가 데이터과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28~30쪽)

| | |
|---------|--|
| 첫 번째 계기 | |
| 두 번째 계기 | |

2. 아래의 여섯 가지 사례는 게임 데이터 분석이 인간을 이해하는 재료가 되고, 게임과 현실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들입니다. 각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게임과 현실 세계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세요.(33~35쪽)

| 사례 | 사례에서 드러난 게임과 현실 세계의 관계 |
|--------------------------------|------------------------|
| 2014년 배재대학교 강아름 교수의 논문 | |
| 2020년 글쓴이가 진행한 연구 | |
| 2010년 토비아스 그라이트마이어 교수의 논문 | |
| 2021년 닉 리의 조사 | |
| 2022년 신레이 천의 연구 | |
| 2005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오염된 피' 사건 | |

3. 정리한 사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를 골라 인상적이었던 이유를 말해 보세요.

| | |
|-----------|--|
| 인상적이었던 사례 | |
| 인상적이었던 이유 | |

생각 넓히기

1. 글쓴이는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른 이에게 생활의 편리함이나 생존 수단이 되는 일종의 서비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39~40쪽) 택배 기사와 배달 기사, 음식을 만들고 농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사람, 의사, 번역가 외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일을 떠올려 보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활의 편리함이나 여러분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 (‘~하는 일’처럼 직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생활의 편리함 혹은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점 |
|--|---|
| | |
| | |
| | |

활동하기

1. 글쓴이는 책 《게임의 사회학》에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공존하는 상황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 보고, 한 가지를 골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 설명하며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아이템 현금 거래를 통해 가상 재화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가상 재화를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를테면 <리니지>에는 ‘진명황의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집행검을 자동차나 시계 같은 현물로 취급해야 할까? 또한 <리니지>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아데나’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상 재화 중 하나다. 그렇다면 ‘아데나’를 ‘원’이나 ‘달러’ 같은 화폐로 취급해야 할까? (...) 2022년 초 아데나의 환율은 100만 아데나 기준으로 약 1,480원 정도인데, 최소 6개월 이상 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안정적인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다른 화폐와 교환할 수 있으며, 가상 세계 안에서 다른 물건을 사거나 파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면 화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출처: 이은조, 《게임의 사회학》, 121~122쪽, 휴머니스트

가상 재화는 화폐로서 가치가 (있다./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 가상 세계 범죄를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행동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가상 세계의 일탈 자체도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2016년 《아에온》이라는 디지털 잡지에 실린 한 칼럼은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칼럼의 저자는 가상 세계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상 세계에서의 행동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만약 가상 현실을 통해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 행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현실과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럴듯하다면 이것을 단지 가상 세계의 행동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쉽게 치부할 수 있을까? 혹은 육체적인 피해는 없지만 감각적으로 현실과 비슷한 정도의 고통이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가상 세계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의 범죄 행위를 현실과 다르게 취급할 수 있을까?

출처: 이은조, 《게임의 사회학》, 178~179쪽, 휴머니스트

가상 세계에서의 범죄는 현실 세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들어가며

1.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도움을 받았을 때의 생각과 느낌은 어땠는지 떠올려 봅시다.

| | |
|----------------------|--|
| 도움을 준 사람 | |
| 받았던 도움 | |
| 도움을 받았을 때의 생각과 느낌 | |

2. 일상에서 마주치는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내용 확인하기

1. 글쓴이는 임상심리학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임상심리학이 기초과학이자 응용과학인 이유는 무엇인가요?(50~52쪽)

| | |
|----------|--|
| 기초과학인 이유 | |
| 응용과학인 이유 | |

2.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빈칸을 채우며 정리해 봅시다.(52~54쪽)

- 임상심리학자는 뇌신경과학, 인지과학, 행동과학 등 다양한 학문과 협력해 () 문제를 연구한다.
- 임상심리학자는 업무 현장에서 심각하지 않은 (), (), ()와 우울증, 조현병 등 다양한 ()를 ()하거나 () 및 ()한다.
- 임상심리학자는 마음의 문제가 ()과 여러 ()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를 마련한다.

3. 정신건강의학과와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봅시다.(59~60쪽)

| | 정신건강의학과와 진료 | 임상심리전문가의 상담 |
|-------------------|-------------|-------------|
| 약물 처방 및 약물 치료 | 가능 | |
| 의료수가 체계의 영향 | 받음 | |
| 50분 이상의 전통적인 심리상담 | 이뤄지기 어려움 | |

생각 넓히기

1. 다음 기사를 읽고,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지원에 대한 냉소적인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취약성-스트레스 모델’과 책의 내용을 근거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글쓴이의 입장에서 설명해 봅시다.(55~57쪽)

“심리상담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도 버틸 힘,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진행된 ‘찾아가는 심리상담’에 참여한 이지현 임상심리전문가(심리사)는 1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이 심리사가 소속된 한국심리학회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피해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심리상담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반응도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지 못한 제도의 문제, 피해자들이 수궁하지 못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이 냉소를 키웠다. 국토부와 HUG가 진행하는 심리지원 사업을 두고도 반감을 품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심리사들은 피해자들의 거부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 국가적·사회적 재난은 피해자들에게 ‘여태껏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남았다.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역시 상담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는다. 박혜연 동덕여대 교수(한국심리학회 홍보이사)는 “전세사기는 너무나 큰돈이 걸린 문제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라며 “심리상담을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트라우마 위기 심리지원 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피해자 반응”이라고 했다.

심리사들은 “그럼에도 언제든 일단 찾아와달라”고 당부했다. (...) 이들은 신속한 개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미 1년 이상 장기간 전세사기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재난 심리지원은 급성기인 사건 이후 1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며 “치료적 접근 없이 6개월 이상 방치되면 우울증이 만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심리사들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심리사는 “찾아가는 상담은 발굴의 목적도 있다”며 “이후에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꾸준한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심리적 개입과 지속적 상담 관리가 가능한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전세사기 피해자들 외면 이해합니다”... 심리상담가들 “그래도 일단 찾아달라” 호소하는 이유, <경향신문>, 2023.06.12.

| 심리지원에 냉소적인 이유 | 심리지원이 필요한 이유 |
|---------------|--------------|
| | |

활동하기

1. 여러분은 상담을 받아 본 경험이 있나요? 현재 관심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고, 글쓴이와 같은 임상심리학자에게 심리상담을 신청하기 위한 요청 사항을 적어 봅시다.

현재 관심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1) 대인관계 ()

- 친구, 선후배와의 문제, 대인 불안, 회피 등

2) 정 서 ()

- 우울, 불안, 분노, 소외감, 외로움, 공포, 잦은 기분 변화, 자살 충동 등

3) 성 격 ()

- 자신의 성격에 대한 불만, 성격으로 인한 타인과의 마찰 등

4) 가 족 ()

- 부모, 부부, 자녀와 같은 가족구성원과의 마찰과 갈등 등

5) 이성 및 성 ()

- 이성과의 관계, 성 문제 등

6) 진로 ()

- 적성, 진로, 취업 등

7) 학 업 ()

- 학습 방법,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 주의 집중 곤란 등

8) 행동 및 습관 ()

- 주의 집중 곤란, 불면, 강박적 행동, 음주 문제, 약물 오남용, 무력감/게으름 등

9) 실 존 ()

- 삶에 대한 회의, 가치관 혼란, 죽음에 대한 문제, 자신감 부족 등

10) 경 제 ()

- 생활비, 주거 환경 등

11) 신 체 ()

- 신체 질환, 피로감, 체중 변화, 외모에 대한 불만 등

12) 기 타 ()

구체적인 상담 신청 내용:

들어가며

1. 꽃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꽃을 줬는지, 또는 받았는지 써 보세요.

2.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접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로로 어떠한 내용을 접했는지 적어 보세요. 없다면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을 추측하여 적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

1. 글쓴이는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지만 첫 직업이 플로리스트였던 것은 아닙니다. 꽃과 상관없는 전공을 공부하고 직장인이 된 뒤 글쓴이는 어떤 고민에 빠졌나요? 그 고민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나요?(67~69쪽)

고민: ()

답: 아니다. 꽃이 나의 ()이다.

2. 영국에서 첫 플라워스쿨을 다닐 때 글쓴이는 월요일에 받은 꽃을 금요일까지 관리하며 사용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무엇에 대한 훈련이었나요?(75~76쪽)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한 첫 단계, ()이라고 부르는 ()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3. 플로리스트는 사실 고된 육체노동을 감당하는 직업입니다. 글쓴이가 말한 육체노동의 사례로는 무엇이 있었나요?(76쪽)

①

②

③

④

4. 글쓴이는 플로리스트로서 창업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직업인으로서 잠재력과 경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나요?(83쪽)

()과 ()에 투자해야 한다.

5. 꽃이 좋아서, 좋아한다는 즐거움이 현재의 글쓴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기에,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글쓴이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나요?(83쪽)

()과 그에 따른 ()를 ()질 수 있는 ()가 필요하다.

생각 넓히기

1. 아래의 영상을 보고 내가 막연하게 ‘플로리스트’ 하면 떠올렸던 것과 실제 플로리스트의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세요.



2. 위 영상과 같이 여러분도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상했던 것과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할 때 예상되는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고 싶은 일:

선택할 때 예상되는 결과:

3. 글쓴이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따르는 결과를 책임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갖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 보세요.

활동하기

1. 글쓴이는 영국 플로리스트 제인 패커의 책에 충격을 받고 '삶 속에 있는 꽃'을 만들고 싶어 영국으로 꽃 유학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꽃꽂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대한민국 1호 플로리스트 임화공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 다양한 꽃꽂이 사진을 살펴보세요. 사계절을 표현한 우리나라 꽃꽂이만의 특징을 느껴 보고, 내가 만약 꽃꽂이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



꽃꽂이 제목:

들어가며

1. 여러분은 지금 희망하는 직업이 있나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연령대는 보통 어떠한가요?

2.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 | |
|---------------|--|----|--|
| 선호하는 직업 | | 이유 | |
| 선호하지 않는 직업 | | 이유 | |

내용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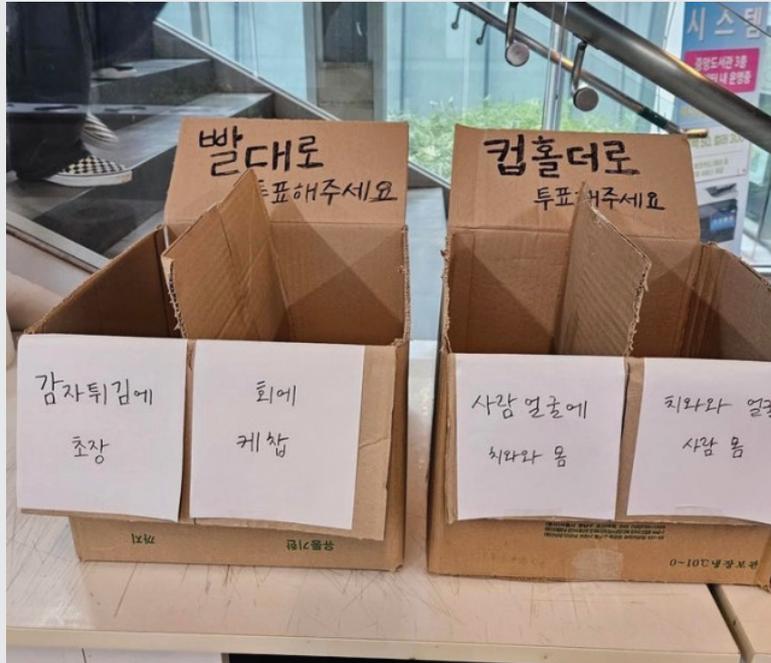
1. 글쓴이가 도배사가 되기 전에 한 일은 무엇이고,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88쪽)

2. 글쓴이는 도배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후, 어떤 노력을 했나요?(91~92쪽)

3. 글쓴이가 어엿한 기술자가 되어 독립한 이후, 삶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떠올린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94쪽)

생각 넓히기

1. 글쓴이는 비가 내려 걷기 힘든 진흙밭에 돌멩이 하나, 상자 조각 하나를 놓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102쪽) 이처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편해지는 작은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기사를 읽고 그런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학교 도서관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한 사례가 화제다. 24일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중도(중앙도서관) 쓰레기 너무했는데 대박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의 사진 속엔 ‘이상형과 연애하고 학점 F 받기’ vs ‘이상형한테 차이고 학점 올 A 받기’, ‘감자튀김에 초장’ vs ‘회에 케찹’ 등의 선택지가 붙여진 박스가 놓여져 있다. 이어 박스의 위쪽에 컵홀더와 빨대로 투표해 달라는 문구를 써놓으며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일종의 ‘밸런스 게임’인 셈이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컵홀더와 빨대를 분리해 박스에 투표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박스는 시험 기간 도서관 주변에 일회용 쓰레기가 쌓이는 문제와 분리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

출처: “컵홀더·빨대로 투표”...대학교 등장한 분리수거 아이디어, <국민일보>, 2023.10.26.

활동하기

1. 글쓴이는 도배사가 된 이후, 건설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의 내용과 다음 글을 읽고 건설 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생각해 본 뒤, 한 장의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세요. (97~98쪽)

도배를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주 6일 근무를 해 왔다. 우리나라는 2011년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되었고, 5년여 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일과 개인 삶의 균형, 소위 말하는 '워라밸'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며 지향하는 가치가 되었지만 나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

건설 현장은 대부분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 공사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주 6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해진 공사 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협력 업체들 역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주 5일 근무, 주 52시간 근무는 지켜질 수 없다. 거기다 일부 도배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보다 일찍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일주일 중 하루도 쉬지 않고 7일 내내 일하는 경우도 있다.

도배를 하며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턱없이 부족한 개인 시간이다. 평일에는 퇴근 후 저녁 식사와 잠깐의 휴식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주어진 자유 시간은 일요일 하루뿐인데, 밀린 일을 하거나 그간 소진된 체력을 낮잠 등으로 보충하다 보면 그 하루마저 금방 끝나 버린다. 결국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다.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무언가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는 일들은 시도조차 쉽지 않았다. (...)

출처: 배윤슬, "도전, 주 5일 근무!", <동아일보>, 2023.10.16.

들어가며

1. 하고 싶은 일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나요? 실패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내용 확인하기

1. 글쓴이는 학과에서 어렵기로 악명높은 바이러스학을 수강할 때 그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를 전공하고 싶다는 꿈을 꾀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110쪽)

2. 글쓴이는 구슬을 만드는 재주, 즉 실험으로 결과를 내는 일을 곧잘 해낸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111~112쪽)

- ① ()가 있다.
- ② ()을 세우고, ()을 증명할 수 있는 ()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줄을 그어가며 헤쳐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 ③ 대학 때 도서관에 불박이로 지내면서 필요한 ()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터득한 덕분에 다양한 실험 및 연구에 대한 이해가 빠른 편이다.

3. 많은 사람이 대학원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12~113쪽)

수없이 실험을 반복하고 실험 조건을 하나씩 바꾸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실험 결과인 구슬이 만들어진다. 심지어 이 구슬은 ()와 ()로 가공해 과학 저널에 실리는 ()이 될 때 비로소 보배가 된다. 꿈을 꾸기 시작하며 상상할 때 계획했던 인생에는 () 때문에 좌절을 경험한다.

4. 글쓴이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가족, 학교, 사회가 과학자를 기르는 데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자의 꿈을 펼치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글쓴이의 주장을 정리해 보세요.(119~120쪽)

- ①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이 크지 않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에서 과학자들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 ② 더 다양한 ()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5. 글쓴이가 제시한 레퍼런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① ()한 저자의 이름. 해당 페이지에 각주를 달고, 논문 제일 마지막에 나열하는 문헌
- ② ()

6. 글쓴이는 왜 롤 모델이라는 말보다 레퍼런스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나요?

우리 가까이에서 실험의 ()와 ()을 반복하며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과학자들이 바로 ()에게 ()가 되는 과학자의 레퍼런스이자, 지금의 ()·()을 먼 훗날 과학계에 ()할 수 있는 레퍼런스이기 때문이다.

생각 넓히기

1. 글쓴이는 현재 연구하는 로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저소득 국가에서 접종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과학이, 세상을 더 발전하게 만들 과학이 지구의 한정된 사람들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는데요. 관련하여 과학자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조사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예시)

- ①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에 인간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 ② 연구 결과에서 관련 정책 등을 제안할 때 그 정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책무성이 존재한다.

출처 : 노성호·구정화·김상원,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53~59쪽, 박영사(2020).

과학자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

자신의 생각

활동하기

1. 글쓴이와 같이 여러분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여성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만나 봅시다. 마음에 드는 영상 1가지를 골라 과학자의 이름과 연구 분야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이름:

연구 분야:

들어가며

1.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하는 데 사진과 그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

2. 여러분이 했던 일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던 일이 있나요?

들어가며

1. 다음은 글의 내용을 인터뷰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 보세요. (127~136쪽)

Q. 식물세밀화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A. 식물세밀화는 식물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린 기록물로, () 일러스트의 일종입니다. 식물세밀화가는 보통 국내외 식물 연구 기관, 대학의 식물 연구자, (), 육종가 혹은 화장품이나 () 회사 등 식물을 다루는 곳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식물세밀화를 그리지요.

Q. 식물세밀화가는 식물을 직접 찾아내서 그려야 하나요?

A. 그런 경우도 있지요. 식물을 발견한 사람이 ()나 표본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저 스스로 식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식물이 가진 종의 특징은 식물의 생애 내내 드러나기 때문에, 식물의 매 순간을 촘촘히 찾아 관찰해야 하죠. 만약 건조된 표본 자료를 관찰하여 그림을 그리는 경우, 표본을 뜨거운 물에 불려 ()으로 관찰하며 그리기도 합니다.

Q. 식물세밀화를 다 그리고 나면 식물세밀화가의 일은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세밀화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좋은 품질로 제작하는 것만큼 오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해서 고화질로 스캔하여 ()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 기록이 틀렸거나 추가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Q. 식물을 직접 관찰할 때 어려운 점은 없나요?

A. 식물은 꽃, 열매, 씨앗 등 ()을 특별히 유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릴 대상의 꽃이 피는 시기와 열매 맺는 시기를 대략 유추해 때에 맞춰 관찰하러 가지요. 그런데 예상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로 인해 개화 시기와 결실 시기가 급격히 바뀌어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생각 넓히기

1. 인터넷에서 미선나무의 사진을 검색해 보고, 책에 실린 미선나무의 식물세밀화(135쪽)와 비교해 보세요.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둘의 쓰임새는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 보세요.

| | 특징 | 쓰임새 |
|----|----|-----|
| 사진 | | |
| 그림 | | |

활동하기

1. 글쓴이는 그릇된 방식으로 식물을 좋아하는 태도, 무의미한 시간과 수고를 건디지 못하는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합니다.(138~139쪽) 다음 기사를 읽고 불법 임산물 채취를 막을 수 있는 팻말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효과적일까요?

(...) 실제 얼마 전 40대 김모 씨는 경기 의왕시 청계산을 오르던 중 불법 채취 광경을 목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자락 곳곳에서 밤과 도토리를 줍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낭은 물론 집게와 마대까지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통행로엔 ‘도토리 무단 채취 금지’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이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고 말했습니다. (...)

도토리 수준을 넘어서 고가에 팔리는 ‘능이·송이버섯’을 대량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양구군 소양호 상류의 선착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하선(下船)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손에 쥔 노란색 자루를 열어 보니 능이·송이버섯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선착장 건너편 국유림에서 몰래 딴 버섯들로, 무게는 총 7.5kg. 배에서 트럭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매년 전국에서 1,200건가량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명 정도는 형사처분까지 받고 있는데요. 산림청에 의하면, 불법 임산물 채취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2017년 138명(103건), 2018년 152명(104건), 2019년 220명(158건), 2020년 233명(170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야생동물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없애는 것으로 자연 보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도토리 등 열매는 야생동물의 중요 식량으로 무분별한 채취는 생태계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호 경기도동물구조관리협회 대표는 “땅에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을 가진 다람쥐에게 가을철 도토리는 중요한 식량”이라며 “야생동물의 겨울철 식량을 사람들이 다 주워간다면, 동물들은 결국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고 농작물을 해치게 된다.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다람쥐가 굶어요”...배낭 찢어질 듯 도토리 채취? ‘불법’입니다, <KBS뉴스>, 2022.09.25.

들어가며

1. 의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병원에 갔던 경험을 떠올리며, 의사가 하는 일을 생각하는 대로 전부 적어 보세요.

2. 위의 일 중에서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대체할 수 있는 일 | 대체할 수 없는 일 |
|------------|------------|
| | |

내용 확인하기

1. 글쓴이가 방문진료와 의료봉사를 통해 만났던 환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145~153쪽)

| | |
|----|--|
| 수진 | |
| 영훈 | |
| 기연 | |

2. 글쓴이가 '찾아가는 의사'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153~154쪽)

생각 넓히기

1. 글쓴이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의사가 하는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여전히 인간 의사의 일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었을 때의 이점과 위험을 다룬 다음 기사를 읽고, 의학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 위와 같은 실제 내용들은 의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이점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점들을 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한다. 첫째는 “인간 성과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료 지식과 우수성을 민주화(정보공유)”하는 것이다. 셋째는 “의료영역에서의 고된 작업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며, 넷째는 “환자 및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가능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몇 가지 위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명백한 위험은 AI 시스템이 때때로 잘못되어 환자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거나 기타 건강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스템이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추천하거나, 영상 스캔에서 종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어떤 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지 잘못 예측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데이터 가용성이다.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려면 전자건강기록(EMR), 약국 기록, 보험 청구 기록 내용 등 소비자 생성 정보와 같은 소스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즉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대두된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의 편견과 불평등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환자는 평균적으로 백인 환자보다 통증 치료를 덜 받는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 기록에서 학습하는 AI 시스템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환자에게 더 낮은 용량의 진통제를 제안하도록 학습할 수 있다. 또한 AI 시스템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의료 시스템에서 덜 바람직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환자에게 더 적은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출처: 인공지능과 의료 “AI 의사의 가장 큰 위험은?”, 〈코메디닷컴〉, 2022.09.25.

활동하기

1. 글쓴이는 '건강하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건강이라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환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려 노력하기보다 아프고 늙어도, 회복되지 않는 손상에 눈물지어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다른 건강의 사회'를 꿈꾸지요.(156~157쪽) 다음 영상을 본 뒤, 글쓴이가 말하는 '다른 건강의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들어가며

1.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용 확인하기

1. 글쓴이는 요리사라는 호칭이 자신이 입을 옷은 아닌 것 같아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에 한몫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엇이었나요?(162~164쪽)

요리사란 ()이
라고 생각했다.

2. 요리사라는 정체성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그 호칭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165~167쪽)

일상적으로 요리하며 자신만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들, 직함 없이 누군가의 먹거리를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요리사라고 불려도 되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3. 글쓴이는 편하지 않은 동시에 자신의 일이 뿌듯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66~167쪽)

()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일이 () 일이고, () 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4. 노동, 독서, 다큐멘터리 시청 등 글쓴이의 많은 경험은 언뜻 요리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요리 곳곳에 스며들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채식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170~171쪽)

영화 <카우스피라시>를 통해 ()의 폭력을 화면으로 접했다.

5. 처음에 글쓴이는 만나는 이들에게 채식을 해야 한다고 수많은 말을 했지만 상대방에게 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글쓴이가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채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며 방법이 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72~173쪽)

만남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든 ()를 들고 나가 말 대신 ()을 내어놓았다.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자리에서든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를 허물고,
서로에게 ()해지기 때문이다. 먹는 것은 생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행위 중 하나로,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곧 함께 () 것이다.

생각 넓히기

1. 글쓴이는 생활할 만큼의 돈을 버는 것만이 직업의 척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일 중 자신의 '직업'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써 보세요.

활동하기

1.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한 가지 골라 이를 채식으로 요리하는 레시피가 있는지 조사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먹어 본 뒤 소감을 작성해 봅시다.

예시: 양념 치킨 - 비건 양념치킨

레시피:



요리해 먹어 본 소감:

들어가며

1. '초월 번역'에 대한 다음 설명과 사례를 읽고, 번역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써 보세요.

[초월 번역]

외국어 원문의 뜻을 훼손하지 않고 현지 문화권의 느낌이 살아나도록 의역한 경우를 칭찬하는 표현이다. 글로벌 콘텐츠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시대다. 그래서 외국어를 직접 알아듣는 이도 많아졌지만, 이국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전히 번역가의 능력이 중요하다. 관객과 독자들이 초월 번역에 환호하는 이유다. 어쩌면 초월 번역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번역기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영역일지도 모른다.

출처: 알면 쓸데 있는 신조어 사전, 김경훈 한국트렌드연구소 소장, 〈한겨레〉, 2019. 03. 13

‘머선 129?’는 황당한 일이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하는 한국의 신조어다. ‘무슨 일이야?’를 경상도 방언으로 발음한 ‘머선 일이고?’의 ‘일이고’ 부분을 비슷한 발음의 ‘129’로 치환한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장난의 번역 사례 하나가 인터넷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 바로 ‘머선 129’를 ‘What 12 9oing on’으로 번역한 것이다. 똑같이 ‘무슨 일이야?’를 의미하는 영어 문장인 ‘what is going on?’에 ‘머선 129’ 속 숫자 1, 2, 9를 절묘하게 매치시킨 사례다. 이 사례는 ‘is’는 숫자 12와, ‘g’는 숫자 9와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이뤄진 센스있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출처: ‘머선 129’,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까?, 신지영, 〈조선일보〉, 2022.07.12

내용 확인하기

1. 글쓴이는 번역가나 작가가 되겠다고 꿈꾸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182쪽)

| 공통점 | 차이점 | |
|-----|-----|--|
| | 번역가 | |
| | 작가 | |

2. 글쓴이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가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183쪽)

| | |
|---|-------|
| 박식한 ()와 ()와 영감 넘치는 ()의 중간쯤에 위치한 () | - 김화영 |
|---|-------|

3. 글쓴이는 동화에 등장하는 “Life is so unfair!”라는 문장을 “산다는 건 왜 이리도 힘든 걸까?”라고 옮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185쪽) 여러분이 번역가라면 이 문장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그렇게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번역 | |
| 이유 | |

4.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번역 툴의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요?(186쪽)

| | |
|----|--|
| 장점 | |
| 한계 | |

5. 글쓴이가 말하는 외서 출판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187쪽)

- ① ()에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번역가에게 일을 의뢰한다.
- ② 일정을 맞추고 단가를 협의한 뒤 ()를 작성한다.
- ③ 작업한 1차 번역 원고를 한글 파일로 출판사에 보낸다.
- ④ 출판사에서 원고를 검토하고 번역자에게 문의 사항을 보내고, 번역자는 ()와 의견을 나눈다.
- ⑤ 출판사에서 책의 성격에 맞춰 판형이나 서체 등을 ()한다.
- ⑥ 역자 ()가 오간 뒤 담당 편집자에게 역자 소개 문구를 보낸다.

생각 넓히기

1. 글쓴이는 근래에 번역가에게 라디오 방송, 북 토크, 강연, 영화 GV 등 다양한 길이 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188쪽) 여러분이 만약 번역가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나요? 인터뷰 질문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활동하기

1.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한 권을 골라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책을, 어떤 언어로 번역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번역가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번역 의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봅시다.

| | | | |
|-----------------|--|-------|--|
| 책 제목 | | | |
| 저자 | | 출판사 | |
| 출판 년도 | | 번역 언어 | |
| 이 책을 고른 이유 | | | |
| 번역 언어를 고른 이유 | | | |
| 번역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 | | |
| 기타 요청 사항 | | | |

들어가며

1. TV나 인터넷 미디어에서 동물 트레이너를 본 적 있나요? 그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그리고 그때 동물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 | |
|---------------|--|
| 동물 트레이너가 하는 일 | |
| 동물들의 모습 | |

내용 확인하기

1. 글쓴이는 동물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203~205쪽)

- 동물 훈련에는 ()이고 ()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교육학에서 교육자가 학생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 적용하듯, 동물 트레이너도 ()해야 한다.
- 동물 훈련은 동물의 삶에 영향을 주므로, 동물 트레이너는 () '나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
- 동물 훈련은 ()이고 ()이어야 한다.

2. 글쓴이가 동물을 인도적으로 훈련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06~208쪽)

- 인간과 함께 사는 동물은 ()가 필요하다.
- 동물의 행동은 ()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 사이에 ()를 형성하는 인도적인 훈련이 강압적인 방법보다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다.
- ()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재미있고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나 ()에게 ()이 되는 행동을 훈련할 때는 그 방법이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을 통한 훈련이더라도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생각 넓히기

1. 글쓴이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동물이 사람을 믿고, 사람이 동물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동물 트레이너가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반려동물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다음 글을 읽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각각 무엇을 훈련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동물 가족과 함께 사는 우리 집은 조용할 날이 없다. 하루에 한 번씩은 비명과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곳이 우리 집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의 사람 동생인 지원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다. 고양이 꾸미가 걸어가던 동생의 발을 걸었기 때문이다. (...)

고양이 꾸미는 사람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는 것을 좋아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다리 보폭 사이를 요리조리 지나다니기도 한다.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잘 걸던 이들이 움찔하고 비틀거리면, 고양이 꾸미가 다리 사이를 지나갔거나 앞발을 뺀 발목을 잡은 것이다.

개 쥬도 마찬가지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그 애의 타깃이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쥬는 꼭 입으로 슬리퍼를 물어 넘어뜨리거나 신발을 빼앗아 간다. 또 8킬로그램이 넘는 단단한 몸으로 높이 점프해 사람들을 발로 찰 때도 있다. 보통은 간식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튼튼하게 서 있는 사람도 몸이 휘청일 정도로 그 일격은 치명적이다.

이 악랄한 동물들은 단 한 치의 자비도 없이 같이 사는 인간을 서로의 방식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공유하는 약속이 있는데, 내게는 그 어떤 치명적인 일격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개와 고양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 쥬는 나와 9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수없이 넘어지고 또 깨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러니 이 인간은 건드리면 크게 다치겠다는 것을 학습한 것일 수 있겠다. 하지만 집 안에서도 걷기를 그만둔 지금,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양이마저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비비적대는 것을 멈추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쥬 언니가 알려준 것일까?

나보다 훨씬 작은 동물 가족들이 보이는 배려는 발견할 때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아니, 배려가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쥬, 꾸미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매일 살피는 것처럼. 나의 개와 고양이도 주의를 기울여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그것을 눈치채면 동물과 산다는 것은 일방향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맘을 주고받는 교감이라는 걸 알게 된다.

출처: 김지우,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름니다》, 74~76쪽, 휴머니스트

| | |
|-------------------|--|
| 반려동물이 훈련해야 할 것 | |
| 사람이 훈련해야 할 것 | |

활동하기

1. 다음 기사와 큐알 코드 속 곰보곰자리프로젝트의 복지 향상 활동을 읽고, 글쓴이의 입장에서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받았던 훈련의 문제점과 돌고래가 방사되기 전 받아야 했던 훈련,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말해 봅시다.

“돌고래 희망이가 점프를 보여 주기 위해 높이 뛰어올랐어요. 근데 그 밑에 옹포의 새끼인 미돌이가 왔다갔다 하고 있었죠. 희망이는 미돌이를 피해 내려갔는데, 그만...”

지난 1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연실(43) 씨는 2004년께 벌어진 ‘사고’ 얘기를 다시 꺼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시멘트 바닥은 추락한 희망이의 피로 빨갛게 물들었고, 그날 돌고래쇼는 급하게 막을 내려야 했다. (...)

박 씨는 당시 언론에 처음으로 나선 증언자였다.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 돌고래 조련사로 일했던 그의 입을 통해 수족관에서 고통스럽고도 짧은 생을 마치는 돌고래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이어졌다. (...)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갈 때마다 “너무 좋았다”며 동시에 “돌고래들이 수족관에 갇혀 있던 고통스러운 모습이 생각났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해미’가 생각난다고 했다. 일본에서 수입된 큰돌고래였는데, “아주 착하고 약한 아이”였다. 고등어 안에다가 비타민제, 간장약 등을 한 움큼 넣어 먹여야 했지만, 결국은 수족관에서 짧은 생을 마쳤다.

출처: 한국은 돌고래 복지 선진국인가? 야생방류 실적주의에 빠졌나?, <한겨레>, 2023.07.18.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석달 넘게 행방불명이다. 2005년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중문의 돌고래수족관 퍼시픽랜드에서 15년 넘게 쇼를 하다가 야생방사¹⁾된 뒤다. 남방큰돌고래는 연안 1~2km 안에서 바깥 붙어산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 ‘뉴포레스트 밍크 해방작전’이 생각한다. 25년 전, 급진 동물권단체 동물해방전선(ALF)이 영국 뉴포레스트국립공원 옆 밍크농장에 들어가 밍크 6천 여 마리를 풀어 준 사건이다. (...) 학자들은 밍크가 연구도 없는 지역에 방사됨으로써 대부분 굶어 죽을 거라고 비판했다. 대다수 동물단체도 동물해방전선에 등을 돌렸는데, ‘동물존중’의 마크 글러버는 “모피 반대운동에도 재앙, 밍크에게도 재앙”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동물해방전선은 “우리도 밍크들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자유를 맛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한달 반 전, 노동당 정부는 모피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라면서 모피농장 폐지를 공언한 상태였다.

우리가 비봉이에게 뜻을 물어보고 야생방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알다시피 그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때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그때 밍크들처럼 비봉이도 ‘세상 뒤집히는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운명을 결정할 때에는 과학과 철학 그리고 경험을 통해 숙고해야 한다. (...) 첫째, 과학이 말해 주는 바 비봉이는 방사는 부적합했다. 돌고래 야생방사는 수족관 감금 기간이 길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돌고래가 어릴 적 배웠던 제주 바닷속의 지리, 해류의 방향 등을 기억해야 하고, 음파로 지형지물을 인식하고 소통하는 법을 되살려야 한다. 사회적 동물인 돌고래는 두 마리 이상을 방사하는 게 과학적 표준이다. 둘째, 철학에 관해선 ‘동물해방’ 같은 이데올로기만 앞섰다. 우리가 민

1) 야생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 주는 일

주주의를 위해 누구 하나를 희생하라고 요구할 수 없듯이, 동물을 야생방사할 때도 전체의 파급효과를 따짐과 동시에 동물 개체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할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셋째, 우리에게 ‘금등이, 대포의 실패’ 경험이 있었지만,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2017년 방사된 금등이와 대포는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방사 주체였던 해양수산부는 흔한 백서 하나 내놓지 않고, 다시 비슷한 조건의 비봉이를 고민 없이 방사했다.

출처: 돌고래의 죽음과 야생방사 실적주의, <한겨레>, 2023.01.25.

| | |
|----------------------------------|--|
| <p>돌고래가 받았던 훈련의 문제점</p> | |
| <p>방사되기 전 돌고래가 받아야 했던 훈련</p> | |
| <p>그 훈련의 필요성</p> | |

| | | |
|--|--|--|
| <p>화천사육곰들의 훈련과정을 소개합니다</p>  | <p>소요와 덕이의 곰 숲 나들이</p>  | <p>화천 곰들의 친구 만들기</p>  |
|--|--|--|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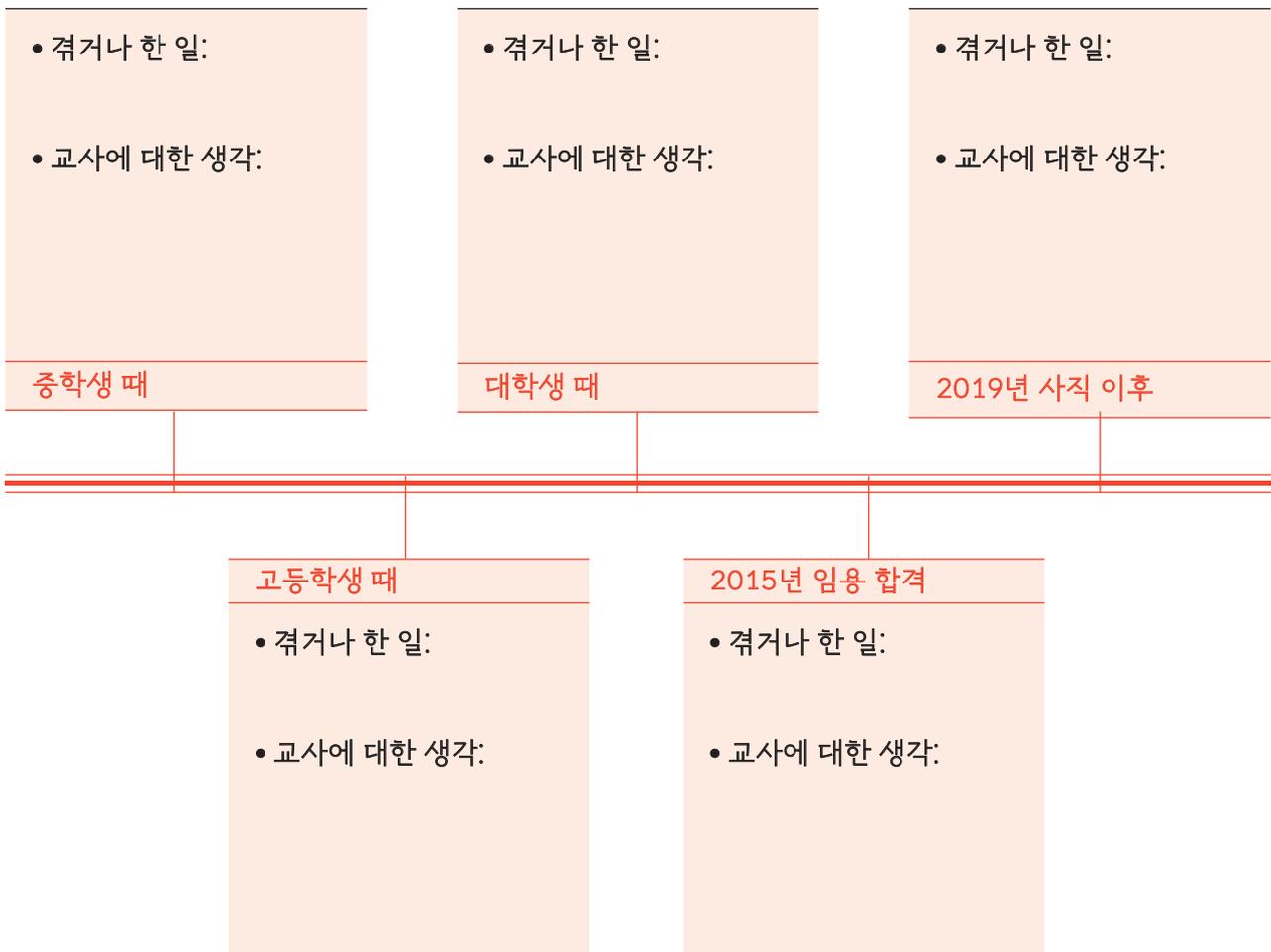
1. '교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사의 일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적어 봅시다.

2. 여러분이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 싶어요'의 형태로 적어 봅시다.

저는 () 싶어요.

내용 확인하기

1. 체육교사를 꿈꾸다가 체육교사라는 직업이 불편해지기까지 글쓴이는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들을 했나요? '교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연표로 정리해 봅시다.(220~227쪽)



생각 넓히기

1. 다음 큐알코드를 통해 영상을 보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여 써 봅시다.



출처: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
〈KBS Entertain 유튜브〉,
2021. 11. 3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2. ‘들어가며’의 두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이 적은 내용은 ‘직업’이었나요, ‘일’이었나요? 위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질문에 다시 답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상상하고 계획해 봅시다. ‘내용 확인하기’에서 정리한 글쓴이가 한 일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 하고 싶은 일 |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야 할 길 |
|---------|-------------------|
| | |
| | |
| | |
| | |
| | |

활동하기

1. 글쓴이는 학교생활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고 합니다.(226쪽) 관련 기사를 읽어 봅시다.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드러날까 걱정한다. 학부모 윤모 씨(41)는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생님이 직접 학교를 밝히지 않아도 댓글에서 아이들의 신상정보가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에서도 “아이들 목소리를 변조해 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아이들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 최모 씨(34)는 “같은 교사지만 브이로그 활동은 반대한다”며 “촬영, 편집에 신경을 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수업자료 하나라도 더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적인 콘텐츠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교사들의 브이로그가 학생들과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고, 교사준비생에게겐 직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지난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브이로그를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합리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교총은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학교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금지보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리고, 사전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등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법리적으로는 근로 시간 외 겸직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다.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다만 (...) 오태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대부분 근로계약엔 ‘직무 전념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 충분히 징계 받을 수 있다”며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경우 동의 없이 학생들을 촬영한다면 초상권 침해도 적용 된다”고 지적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국가적, 직장인은 회사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겸업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업장들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출처: 교사 브이로그 찬반 논란... “정보 노출” vs “소통 창구”, <머니투데이>, 2021.5.25.

‘교사 브이로그’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 교사를 포함한 직장인이 자신의 일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제작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 근거와 함께 적어 봅시다.

| 교사 브이로그 찬성 | 교사 브이로그 반대 |
|------------|------------|
| | |

나는 직장인 브이로그에 (찬성/반대)한다. 왜냐하면